

한국 근대시기 대순사상의 특질

- 초민족주의와 근대 및 탈근대 가치를 중심으로 -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 교수

- I. 서론
- II. 문제의식
- III. 대순사상과 초민족주의

- IV. 대순사상과 근대 및 탈근대의 가치
- V. 결론

I. 서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제 근대를 넘어 탈근대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근대 문명이 전근대적인 전통사회를 해체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탈근대 시대에서는 근대문명이 가지는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탈근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진정 미래지향적 가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근대라는 과거를 올바르게 반성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 자명할 것이다. 올바른 과거의 재해석이 없이는 올바른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가치가 태동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조선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상공업자의 사회적 진출

과 자본 축적, 일부 양반층의 몰락과 서민층의 매관매직과 사회진출, 산업의 발달과 지방도시의 사공업적 육성 등 전통적인 봉건사회 내부의 변혁이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1876년 개항 시기를 전후하여 근대의 시점을 잡기도 하며, 우리나라가 직접 유럽 세력의 위협을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상적으로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스스로 과감한 개혁을 시도했던 시기를 따지면 그 기점을 1860년대로 소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대체로 19세기 후반은 조선 내에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근대화를 향한 개혁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 후기 우리나라에 근대문명이 들어오며 모든 사회가 혼란에 빠진 때 한국에서 태어나 1901년에서 1909년까지의 9년 동안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통하여 상극(相克)에 지배되어 진멸할 지경에 이른 선천(先天) 세상을 끝내고 후천(後天)의 무궁한仙境(仙境) 세상을 개벽(開闢)하였다고 신앙되고 있는 강증산(姜甞山, 1871-1909)이 남긴 행적과 사상, 그리고 그 사상을 이어받은 중단 대순진리회의 사상인 대순사상이 당시 서구로부터 근대문명을 수용하는 시기에 있어 어떠한 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근대의 모순을 극복하고 탈근대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²⁾

1) 이경원, 「대순진리의 근대성과 변혁사상」, 『동학학보』 10 (2005), pp.47-48.

2) 여기에서 ‘근대’와 ‘근대성’, ‘근대화’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근대(近代, Modern times)는 서양 역사상의 시대구분으로서 특정 시기를 일컫는다. 근대시기는 근세 다음이며, 현대 전이다. 근대의 시작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견해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17세기, 18세기부터라고 본다.(근대, 위키백과, Available: <http://ko.wikipedia.org/wiki> 참고) 이러한 시대 구분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며, 이러한 기준을 동양과 같은 다른 문명권에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는 주요한 담론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한편 근대성(近代性, Modernity)은 서구 유럽 문명을 중심으로 근대 시대, 즉, 17-18세기에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온 사회생활이나 조직의 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근대성은 어떤 단일한 방향이 아니라 정치적(세속적인 국가와 정치체제의 출현), 경제적(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사회적(계급의 형성과 진보된 노동의 성격, 사회적 분화), 문화적(중고 문화에서 세속 문화로의 이행) 차원의 운동 과정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서구사회에서의 근대성이란 17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를 경과하면서 만개한 특정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힘들과 과정의 벡터적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

근대, 근대성, 근대화라는 개념은 어떠한 단일한 방향을 가지는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이유로 서로 상충하는 다양한 힘들이 함류하고 역류하면서 복합적인 궤도를 그리는 하나의 기획(project)으로 불리기도 한다.³⁾ 따라서 어떤 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를 논한다고 할 때, 그 작업은 상당히 방대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한 차원으로만 논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화와 연관되어 생각해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질들에 국한되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지면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특질들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논의하지는 못하고 증산의 사상 중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리고 이를 다른 한국 근대 신종교의 교리와 비교함으로써 그 특질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에 더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근대시기에 있어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구심점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민족주의 역시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다시 평가가 필요하다. 증산사상⁴⁾ 또는 대순사상은 민족종교의 틀에서 인식되어 왔으며 그러한 점에서 민족 또는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민족주의는 단일적인 민족구성원이 독립적인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민족정치·민족경제·민족문화를 전개하려는 욕구를 그 본질적인 성격으로 삼는다.⁵⁾ 근대 시기의 민족주의는 프랑스 시민혁명을 계기로 서유럽에 널리 유포되었으며, 그 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다.(조현범, 『종교와 근대성』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돈구 외 15,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p.15 참고) 이에 비해 근대화(近代化, Modernization)는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근대시대에 이룩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면에서의 총체적인 변화를 일컫는다.(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역사문제연구소편』, 서울: 역사비평사, 1996, p.190. 참고) 본 논고는 근대화에 내재된 가치, 즉 근대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3) 조현범, 앞의 책, pp.15-16.

4) 여기에서 증산사상은 증산께서 남기신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해석한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반면 대순사상의 경우 중단 대순진리회에서 구원상제(증산)-도주 조정산-도전 박한경을 거치며 만들어진 사상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민족주의”

국가들이 형성되면서 소위 제 3세계 성향의 비서구적 민족주의가 발생하였다고 본다.⁶⁾ 근대성 또는 근대화라는 개념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대의 시기에 있어 민족, 또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였다. 근대화 과정에서 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은 강력한 사회 이데올로기적 통합을 시도하였으며, 여기에서 이용하였던 개념이 ‘국민국가’라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개념은 실제 민족의 개념과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여러 민족이 합쳐져 국민국가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 시기에 민족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통합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강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약소국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서로 융합되는 부분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민족주의나 민족주체사상은 산업화 과정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체계로 기능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⁷⁾ 이러한 민족주의는 과거 제국주의의 논리와 맞물려 지나친 국수주의와 팽창주의적 성격을 띠기도 하였으며, 강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약소국에서는 저항적 민족주의의 형태로 발현되기도 하였다.⁸⁾ 이처럼 민족,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근대화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때로는 근대화와 서로 역동적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순사상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이에 대한 가치 지향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근대 제국주의가 소멸되어가고 세계화시대와 다문화사회가 진행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민족주의 또한 일방적으로 긍정적인 관점 또는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제는 이러한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다시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대순사상과 어떻게 연

6) 김태수,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p.89.

7) 같은 글, pp.143-144.

8) 같은 글, p.31.

관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도 있듯이 과거를 잘 알아야 앞으로의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거처 온 근대라는 시기에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대순사상과 이 사상의 근원이 된 증산의 사상은 어떠한 가치를 말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종교는 기존 사회를 변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가 혼란하고 기존의 가치체계가 급격히 바뀌는 시대에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는 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물질문명과 가치체계가 급변하였던 근대시대에 신종교가 기존의 지배세력과 기성종교들의 편견과 억압 속에서도 민중⁹⁾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대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의와 도덕성 때문이었다.¹⁰⁾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시기에 발생한 대순사상이 말하고자 했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II. 문제의식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화 또는 근대적 가치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제가 되는 몇 가지 관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학계에서 한국 신종교의 특성을 규정하는 주된 학설 및 연구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

9) 민중은 역사를 창조해온 직접적인 주체이면서도 역사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회적 실체를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지배관계에서 종속계급·피지배계급에 속해왔다. 민중은 고정된 계급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파악되는 유동적인 계급·계층의 연합이다. 따라서 계급·계층·시민 등 여러 개념을 포용하는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6), “민중”.

10) 노길명,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서울: 빅벨출판사, 1988), pp.222-229.

근대화와 신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신종교의 발생을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역사적 산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일부 학계에서는 한국 신종교의 발생의 원인을 사회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특정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 이를테면 사회의 내적 모순이나 급격한 변동, 아노미적 상황 때문에 한국 신종교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신종교 운동을 사회역사적 결정물로 간주한다. 즉, 어떤 사회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제 조건이 곧 신종교 운동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¹¹⁾ 이를 근대성과 연관 지으면, 근대 시기에 태동된 한국의 신종교는 민중의 당시 근대 의식의 성장과 그 표현으로 발현된 결과물이라는 논리이다.

한편, 강돈구는 이러한 논리는 신종교 운동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여타의 요소들을 무시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회역사적 조건이 신종교 운동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정 사회의 사회역사적 상황이 필연적으로 신종교 운동을 발생시킨다는 논리는 일종의 비약이라는 것이다.¹²⁾ 이러한 기능론적인 설명은 벨라(R. N. Bellah)가 지적한 대로 결과론적 환원주의(consequential reductionism)에 빠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종교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 종교가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발생했다는 설명이 지니는 오류이다. 이는 “우산을 쓰는 이유는 비가 오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같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신종교가 심리학적 불안과 아노미 때문에 생긴다는 논리 또한 심리학적 환원주의(psychological reductionism)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종교의 발생 원인을 이러한 시각에서 찾은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¹³⁾ 따라서 신종교의 발생 원인을 몇몇 이론에서 찾고 그것을 천편 일률적으로 모든 신종교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신종교를 각기 ‘주어진

11) 강영한, 「한국 근대 신종교의 성격과 사회변동: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를 중심으로」(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30-31.

12) 같은 글, p.31.

13)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서울: 박문사, 2011), pp.570-572.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과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신종교의 전개과정(life-cycle)을 살펴보는 것이 신종교를 이해하는데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여타 사회운동과는 달리 종교운동은 사회구조적 상황과 더불어 운동을 유도하는 주체를 필요로 한다. 즉, 아무리 신종교가 발생할 조건이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이 운동을 지도하고 이끄는 존재, 비범한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¹⁵⁾ 특히 종교 현상이 다른 사회운동의 현상과 차별되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와 관련되어 고찰하기에 앞서 살펴볼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대순사상은 주로 한국 신종교, 그 중에서도 증산교 계열로 분류되어 논의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 신종교의 근대적 가치, 탈근대사상, 민족주의 등과 관련된 일련의 논의 역시 이러한 바탕 하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일면 대순사상의 특징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대순사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급기야 왜곡시켜 드러낼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 강돈구는 신종교라는 용어부터 일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개 신종교에 대한 대부분의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일반적으로 신종교라는 용어를 잔여 범주(residual category)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¹⁶⁾ 또한 과연 '신(new)'이라는 것을 어느 시기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적용 범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강돈구는 현재 한국 신종교의 유형분류체계가 일본치하 시기에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1935년 우리나라의 신종교를 동학계, 흠치교계, 불교계, 승신계, 유교계, 계통불명으로 정리한 유형을 아직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비판한다. 이러한 유형론은 치밀한 교리 연구에 따라 검증된 특징을 바탕으로 분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분류된 개별

14) 같은 책, p.567.

15) 강영한, 앞의 글, p.31.

16)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p.541.

종단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¹⁷⁾ 또한 그동안 학계에서는 한국 신종교의 특질로서 혼합주의(syncretism), 무속적인 요소, 선민신앙, 지상낙원 건설, 구세주 신앙, 종말론 강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특질은 한국 신종교만의 특징이라기보다는 현대 모든 종교들이 지내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¹⁸⁾ 따라서 대순사상 또한 현대 신종교의 분류 내에서 그 특징을 고찰하기보다는 대순사상 독립적인 정체성에 근거하여 올바른 평가가 내려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대순사상의 발생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요인에만 두거나 대순사상을 한국 신종교의 하나로 분류하고 한국 신종교의 공통적인 특질에만 착안하여 대순사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보다는 대순사상만이 가지는 특질을 보편적인 종교사회학적 시각에서 밝혀내고 그 중에서도 원래 그 종교의 창도자가 뜻했던 바를 우선적으로 고찰하여 이러한 사상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고 반영되었는지를 중립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신종교가 가지는 근대적 가치와 민족주의를 고찰한 연구 또한 위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신종교가 가지는 근대적 가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근대적 가치에 대해서는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강영한의 연구¹⁹⁾, 한일 근대초기 신종교운동에서 나타난 구체제 변혁의 윤리구조를 고찰한 박승길의 연구²⁰⁾, 윤승용의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고찰한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연구²¹⁾가 있었으며, 민족주의와 관련해서는 박원용의 한국 신

17) 같은 책, pp.540-551.

18) 같은 책, pp.557-563.

19) 강영한, 앞의 글.

20) 박승길, 「한 일 근대초기 신종교운동과 구체제변혁의 윤리구조」(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21) 윤승용,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종교의 민족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²²⁾ 강돈구의 한국 근대종교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²³⁾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무극도 계열인 대순진리회를 증산교 계열로 묶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대순사상의 독자적인 특성이 고찰되지 못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민족주의를 둘러싸고 여러 학자들의 이견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른 신종교에 비해 증산교 계열이 상대적으로 민족주의 운동의 참여가 약했다고 보고 있다. 그 원인으로 증산계서 일본에 대적하지 말 것과 일본은 앞으로 패망할 것이고 장차 한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언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강돈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산교계 종단들은 강한 선민의식으로 인해 자민족중심주의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²⁴⁾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증산계 교단이 이정립(李正立)의 사상이 주가 되는 사회 진화론과 단군민족주의 교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원래 증산사상의 본뜻을 왜곡하였다는 점을 피력한 김태수의 연구²⁵⁾, 무극도 계열 종단을 포함한 다양한 증산교단에 나타난 민족주의를 고찰한 이경원의 연구²⁶⁾, 수운과 증산의 사상이 가지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비교한 고남식의 연구²⁷⁾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사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여 온 경향이 있었다. 이는 종교가 신념체계뿐만 아니라 의례체계와 공동체라는 구성요소로 형성되어 있는 복합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종교를 하나의 순수한 관념체(觀念體)로만 취급하는 것이다.²⁸⁾ 따라서 대순사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상적 관점의 접근뿐만

22) 박원용, 「한국 신종교의 민족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천도교, 증산교, 원불교를 중심으로」(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23)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서울: 집문당, 1992).

24) 같은 책, p.136.

25) 김태수, 앞의 글.

26) 이경원, 「한국 근대 증산교단의 민중·민족운동-개항기부터 해방이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2012).

27) 고남식, 「수운과 증산의 민족주의적 요소 비교」, 『신종교연구』 26 (2012).

28) 윤승용, 앞의 글, p.6.

아니라 종교사학의 관점에서 실증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도와 태극도를 포함한 중단사를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경원²⁹⁾의 대순진리가 가지는 근대성과 변혁사상에 대한 논문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성을 기존의 체도로부터의 ‘변혁’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하고 변혁의 관점에서 증산이 행한 ‘천지공사’의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또한 윤기봉³⁰⁾은 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를 고찰한 바가 있다. 이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를 주로 사회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근대적 가치를 포함하여 고찰하지 못하였고, 다른 신종교의 사상들과 비교가 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학, 원불교, 대종교와 같이 같은 근대시기에 태동한 다른 신종교와 비교함으로써 대순사상이 가지는 특질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대순사상과 초민족주의

1. 사상적 관점을 중심으로

기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는 종교의 전파성에 따라 종교를 부족종교(tribal religion), 민족종교(national religion), 세계종교(world religion)로 구분하면서 민족종교는 부족종교보다 그 전파의 범위가 넓으나 특

29) 이경원, 「대순진리의 근대성과 변혁사상」, 『동학학보』 10 (2005), pp.43-79.

30) 윤기봉,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 문제-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4 (2010), pp.143-159.

정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퍼지기는 힘든데, 민족 특유의 혈연, 지연 관계나, 민족의 문화 전승, 풍속, 습관이 종교 조직 속에 깊숙이 짜여 들어가 있으면 그러한 제약을 낳게 된다고 설명하고, 유대교나 일본의 신도를 그 예로 들었다. 그리고 세계종교는 보편종교(universal religion)로도 불리는데, 인종, 민족, 국적, 성별, 계급을 초월해서 무릇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퍼져갈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구상(構想)이 세계적 규모를 갖출과 동시에 그 초점이 순수한 개인에게까지 좁혀지며, 인간의 문제해결의 조건을 극한점까지 단순화시키며, 어떠한 민족적, 사회적 경계도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요약되어 진다. 그리고 그는 종교가 시대를 초월하고 존속해서 그 소임을 수행해 나가려면 인간에게 이상(理想)이 제시되어야 할 것과 ‘인간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 수단’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³¹⁾

이처럼 과거 민족주의나 민족주체사상은 산업화 과정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체계로 기능하였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³²⁾ 그 사상이 세계적인 보편적 이상향이 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증산의 사상 속에 민족주의를 찾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증산은 조선에서 앞으로 도통군자가 창성할 것이라고 하며,³³⁾ 앞으로 조선은 상등국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³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다. 한편, 증산은 반외세를 외치는 동학이 뜻은 가상하나 무고한 생명만 죽인다고 하면서 동학난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³⁵⁾ 이와 같이 증산은 민족주의에 대한 서로 상반된 관점을 말

31) 기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 『종교학』, 박인재 옮김 (서울: 김영사, 2000), pp.141-142, 166-172. (김태수, 앞의 글, pp.70-71 재인용)

32)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pp.143-144.

33) 『전경』, 권지 1장 11절, 예시 45절

34) 같은 책, 예시 29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증산의 동학에 대한 평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학은 당시 반봉건, 반외세, 반일본을 외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상의 효시로서 주목받는 최초의 민중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최수운은 일본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침략한 원수이며, 따라서 멀해야 하는 복수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³⁶⁾ 반면, 증산은 오히려 일본이 임진왜란 때 서울에 들어오지 못하고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해되었고, 오히려 조선에게 모 심는 법을 가르침으로 인해 원한을 맺었으므로 이를 풀어주기 위해서³⁷⁾ 조선을 일본에 맡기는 공사를 보았다. 또한 증산은 일본에 대적하지 말고 순종할 것을 말하면서,³⁸⁾ 앞으로 일본은 패망하여 품삯도 못 받고 돌아갈 것이라고³⁹⁾ 예언하였다. 이는 현재의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일견 친일적인 사상이라고 보일 수도 있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증산이 서양 세력에서 조선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게 잠시 조선을 맡기는 공사를 본 것을 볼 때 증산의 사상에서는 일제의 동아시아 맹주론과 유사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⁴⁰⁾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점은 증산의 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민족주의적 사상이다. 그 예로 증산의 사상에서는 한 민족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이 되기도 하는 사상이 발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증산은 “일본 사람이 조선에 있는 만고 역신(逆臣)을 거느리고 역사를 하므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보면 죄 지은 자와

35) 같은 책, 행록 1장 23절.

36) 최수운은 자신의 7대조 진립(震立)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때 많은 공을 세우고 전사하여 사후에 병조판서의 벼슬과 정무공의 시호를 받았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안심가’에서는 “개같은 왜적(倭敵)놈아”, “그 역시 원수로다.”라는 표현을 통해 일본을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었다. 박광수,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집문당, 2012), pp.199-201 참고.

37) 『전경』, 예시 74절.

38) 같은 책, 예시 57절.

39) 같은 책, 공사 2장 4절.

40)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p.137.

같이 두려워한다.”⁴¹⁾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는 조선에서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일본에 붙어 해원을 한다는 말이다. 이 외에도 일본을 조선의 적대적 국가로 보았던 최수운이 죽은 뒤에는 그를 일본의 명부를 담당하는 신명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⁴²⁾ 이처럼 증산은 한 민족의 운명의 전개와 육망의 해소가 한 나라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관계를 통해 일어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민족의 구성원까지 교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초민족주의적 사상 때문에 앞서 지적된 증산의 사상이 친일적이라는 평가는 다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증산은 이러한 초민족주의적 시각에 입각하여 그의 천지공사를 행한 것이며, 조선을 일본에 맡기는 공사 또한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증산은 조선을 일본에 맡기지만 일본에게 못 주고 조선에게만 주는 것이 바로 ‘인(仁)’이라고 하며 이 인을 잘 지키라고 말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비록 일본의 식민 치하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서하고 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증산께서는 일본에게는 인을 주지 않았고 조선에게 인을 주는 공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증산이 뜻한 민족주의는 한 민족의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 초민족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민족의 해원과 대승적 용서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산이 말한 진정한 세계의 개혁은 한 민족의 관점에서, 또는 사회 운동 차원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같은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을 회복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차원이며, 따라서 윤리적이며 종교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증산의 이러한 초민족주의적 사상은 그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후세에 남겨놓는 공사를 본 데에서도 나타난다.⁴³⁾ 이는 동학을 창시한 최수운이 반외세와 반일본의 기치를 내걸

41) 『전경』, 공사 3장 19절.

42) 같은 책, 공사 1장 7절.

고 서학에 대항했던 것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동학이 내세운 척왜와 척양은 기본적으로 당시 유럽의 척사위정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⁴⁴⁾ 이에 비해 증산은 중화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시 유교의 사고방식을 ‘부유’라고 하면서 비판하고,⁴⁵⁾ 최제우 또한 “유교의 전현을 넘지 못했다.”⁴⁶⁾고 그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였다. 대신 동양에 와서 서양의 문물을 전하려고 했던 이마두(마테오리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그가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을 열었다고 평하였다.⁴⁷⁾ 또한 증산은 서양 문명의 이기(利器)는 천국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다.⁴⁸⁾ 이는 민생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민족에 상관없이 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실용주의와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산의 세계사적 관점은 조선을 중심으로 새 세상이 열린다는 당시 풍수도참 사상과는 반대된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은 계룡산에 정씨가 도읍한다는 정감록의 신앙에 대해 “일본인이 산속만이 아니라 깊숙한 섬 속까지 살살이 뒤졌고 또 바다 속까지 측량하였느니라. 정씨(鄭氏)가 몸을 붙여 일을 벌릴 곳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라.”⁴⁹⁾,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요.”⁵⁰⁾, “조선사람은 정씨만 찾나니 아무 것도 배운 것이 없이 정씨만 찾아서 무엇하리요. 한갓 분잡케만 될 뿐이라. 그러

43) 같은 책, 공사 1장 35절.

44) 강돈구, 『근대 신종교와 민족주의 I』,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지형의 변동 I』(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2005), p.191.

45) 『전경』, 교운 1장 6절.

46) 같은 책, 교운 1장 9절.

47) 같은 책, 교운 1장 9절.

48) 같은 책, 공사 1장 35절.

49) 같은 책, 교법 3장 39절.

50) 같은 책, 교법 3장 40절.

므로 정씨와 조씨와 범씨를 다 없이 하였노라.”⁵¹⁾라고 하면서 이를 철저히 비판하였다.⁵²⁾ 당시 정감록에 나오는 십승지와 같이 어떠한 장소에 거주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환난에 대비할 수 있다는 예언도 유행하였는데 증산은 이를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국지적이며 폐쇄적인 사상이 아닌 범세계적이고 열린 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산은 세계가 한 가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⁵³⁾ 앞으로 지구촌 시대가 열릴 것임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증산의 사상은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범세계적인 사상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증산의 사상을 편협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증산의 사상은 그것이 세계종교(world religion)가 될 수 있는 보편성과 포용성을 가지며 특정 민족의 문제가 아닌 개인과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종단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민족주의는 주로 동학 및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그리고 증산교를 중심으로 연구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근대 신종교가 각 종단별로 그 정도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민족주의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대종교는 무력 항일투쟁의 선봉장에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종교의 역사는 항일독립운동사와 분리시킬 수 없을 만큼 일체의 침략에 대한 항쟁의 역사였다. 대종교는 국가가 일제에 의해 강점당하자 교단 본부를 북만주로 옮긴 다음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에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하는 한편, 비밀결사단체인 ‘중광단(重光團)’을

51) 이상호, 『대순전경』 7판 (전라북도: 증산교회본부, 1975), 5장 22절.

52) 강돈구,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p.635.

53) 『전경』, 예시 81절.

조직하여 무장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20년 청산리대첩의 승리에 큰 공헌을 하기도 하였고 이에 참여한 대다수는 대종교 신도들이었고 주도 세력 또한 대종교의 간부였다.⁵⁴⁾

동학 및 천도교의 경우 최제우 시기에는 반외세의 논리에 따라 반일 사상이 강했던 반면, 손병희가 주도한 천도교에 오면서 일제의 도움을 받아 근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⁵⁵⁾ 원불교의 경우 일본의 정교분리 사상을 받아들여 정치의 경우 일본제국의 정치를 따르고 조선과 같은 약자는 일본과 같은 강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역할분담론을 지지하였다. 이는 원불교가 일제라는 정치의 주체를 인정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이 때문에 원불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 다른 신종교에 비해 가장 적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한다.⁵⁶⁾

대부분의 증산교단에서도 이러한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은 대종교와 같이 극렬하지는 않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예를 들면, 김형렬이 창립했던 미륵불교에서는 일본에 큰 변란이나 재앙이 일어날 것을 회구하는 뜻에서 1916년과 1923년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360개 군에 독신자들을 파견하여 물형부(物形符)를 묻는 ‘360주(州) 공사(公事)’를 행하고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보냈으며, 정인표가 이끌던 미륵불교에서는 1938년 일본의 패망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인 신도공사(神道公事)를 행하였다. 이 밖에 대법사의 동아흥신사 사건, 허육의 광주 옥화(獄禍) 사건과 순교,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教)의 태극기 제작, 인도교(人道教)의 만주에로의 이주, 문공신의 국제간첩 혐의 사건, 박공우의 봉래 결의 사건 등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탈에 대한 저항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족운

54)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pp.292-293.

55) 고건호, 「동학의 세계관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변증법」, 강돈구 외,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pp.378-403.

56) 강돈구, 「근대 신종교의 민족주의 II」, 강돈구 외,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pp.244-251.

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⁵⁷⁾

하지만 증산교단의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의 성격이 증산이 뜻했던 방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증산의 사상이 가지는 초민족적인 특질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무극도는 어떠한 정치사회적 행보를 보였는가에 주목하고 이를 다른 증산교단의 활동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일제 강점기하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인 증산교단은 증산의 중도 차경석이 세운 보천교라고 할 수 있다. 차경석은 자신이 향후 천자로 등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단을 형성해 나갔다. 항간에는 그의 교단을 ‘차천자교’라고 불렀고, 이러한 소문은 반일적 성향과 민족주의적 성격을 내포함으로써 민족운동을 회귀하던 민족 운동가들과 3.1 만세운동의 실패로 허탈감에 빠져있던 민중에게 이 운동에 참여토록 만드는 좋은 유인요소가 될 수 있었다. 이 교단에서 발급하는 교첩이 새 왕조의 관직을 보장하리라는 소문이 민중의 현세 기복적인 욕구와 일치함으로써 이 교단의 교세 확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⁵⁸⁾

한편, 증산은 동학 교도들과 중도 차경석을 평가하면서,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의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候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룩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 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후천에는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두목을 정하려는 중인데 경석이 십이제국을 말하니 이는 자청함이나. 그 부친이 동학의 중진으로 잡혀 죽었고 저도 또한 동학총대를 하였으므로 이제부터 동학신명을 모두 경석에게 붙여 보냈으니 이 자리로부터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리라.”⁵⁹⁾고 말

57) 노길명, 『한국신홍종교연구』, pp.155-156.

58) 같은 책, pp.154-155.

하고 동학신명의 해원공사를 차경석에게 붙였다. 이를 볼 때 향후 차경석이 내세운 보천교의 활동은 증산의 뜻을 계승한다기 보다는 증산의 원한에 맺힌 동학교도들의 해원공사와 연관됨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대순사상에서 강성상제(증산 강일순)로부터 종통(宗統)을 계승하였다고 신앙되고 있는 도주(道主) 정산(鼎山) 조철제(趙哲濟, 1895-1958)께서 세운 무극도(無極道)의 행보는 이와는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도주 조정산은 1925년(을축년)에 구태인 도창현에 도장을 세우고 무극도를 창도하였다. 정산은 일제의 정치 논리에 동조하거나 또는 반대로 비판하는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무극도 계열의 경우 1936년 4월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령⁶⁰⁾에 대응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 자진 해산하였으며, 이는 정산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정산은 이를 ‘잠복도수’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천지도수의 운행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⁶¹⁾

천도교가 나중에 개화사상을 받아들이고 존속을 위해 일제와 화친할 수밖에 없었던 점, 대중교가 나중에 일제의 정교분리 사상을 받아들인 점, 원불교가 일제의 정교분리 정책을 받아들이고 일제의 역할분담론을 인정한 점은 모두 어쩔 수 없이 단체의 존속과 정치적으로 민족의 세속적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행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극도의 행보는 이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의 요구사항과 정치적으로 민족의 세속적인 안녕이나 종단의 존속에 초연한 관계로 일관하였으며, 어떠한 반대도, 또는 수용도 하지 않고 자진 해산함으로써 일제의 정책과의 무관련성(無關聯性)을 유지하였다. 다만 무극도 계열(도주 조정산의 무극도-태극도로 이어지는 종단을 지칭)의 사회적인

59) 『전경』, 공사 2장 19절.

60) 일제는 유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일본의 신도만 공인종교로 인정하였으며, 민족종교들에 대해서는 유사종교로 분류하였다. 1930년부터 일제는 ‘유사종교 해산령’을 내려 민족종교를 모조리 해산시켰다. 박광수, 앞의 책, p.197 참고.

61) 『전경』, 교운 2장 43절.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주로 경제활동이었다. 신도들의 생활 안정, 빈민구제를 위한 수리사업, 황무지 개간사업, 간척지 간척사업 등이 이에 속한다.⁶²⁾

증산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처한 문제를 무장 항쟁이나 동학과 같은 혁명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보다는 그가 행한 천지공사의 순리에 따라 순응하는 순수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증산계 종단 그 중에서도 무극도 계열 종단은 민족운동이나 사회적 모순 해결에 소홀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다.⁶³⁾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극도 만큼 증산의 뜻을 그대로 따랐던 종단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무극도 계열 종단의 행보는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는 다른 증산계 교단들이 연합하여 증산교단을 민족적 종단으로 재구성하려고 하였던 행보와도 달랐다. 이 연합운동은 해방 이후 증산교단통정원, 증산대도회, 민족신앙총연맹, 동도교, 증산신도친목회, 증산교단협회, 증산교단통일회, 증산종단연합회 등을 구성하고 주로 단군민족주의⁶⁴⁾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사상은 단군계 사상과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혼합 사상에서는 증산이 말한 신도(神道)를 단군 시대에 있었다고 신앙되는 고신도(古神道)로 해석한다든지, 원시반본 사상을 단군사상과 연관시키는 등 증산의 뜻과는 상관없이 민족주의 색채를 입히려고 하였다.⁶⁵⁾ 하지만 박한경 도전(都典)이 1958년 3월 6일 도주 조정산의 유명에 의하여 종통을 계승하여 1969년 6월 창립한 대순진리회의 행보는 다른 증산계 연합종단이 보여주었던 민족주의의 행보와는 관련성이 없었다. 그 보

62) 노길명, 『한국신홍종교연구』, p.156.

63) 같은 책, p.160.

64) 단군민족주의는 단군의 건국을 자기 집단의 역사적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단군의 건국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집단(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인식에 토대하여 집단적(민족적) 결속과 발전을 추구하는 일련의 의식과 사상·운동을 가리킨다. 정영훈,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11 (2012), p.64 참고.

65) 김태수, 앞의 글.

다는 세계포덕을 기치로 내걸고 증산의 사상을 전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대순진리회의 행보는 국지적인 민족주의나 민족우월주의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지구화시대에 맞게 세계를 바라보고 민생의 생활을 풍족하게 하려는 증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증산은 우리 민족이 세계의 상등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지만 이는 조선 민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순사상은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사상으로 해석될 수 없고 서구 열강이나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는 반동으로 나오는 국수주의적 모습을 띄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없다. 증산의 사상은 한 민족의 범위를 넘어 모든 민족이 연관되어 있다는 원칙 아래 해원과 화해, 용서를 위주로 한 초민족적이며 세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이 말한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서 앞으로 상등국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자국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국수주의나 민족우월주의로 해석하여서는 곤란하다.⁶⁶⁾ 이항녕은 증산의 사상이 지금까지 근시안적인 개인이나 민족, 그리고 국가위주의 세계관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우주화 관점에서 인간을 보고 세계를 보고 우주를 보아 인간을 좁은 관점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세계사적 의의를 넘어 우주사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⁶⁷⁾ 따라서 증산의 사상은 기존의 민족주의의 관점을 넘어서 초민족주의적이며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66) 그동안 한국의 민족주의적 특징을 보통 저항민족주의(抵抗民族主義)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저항적 기능이 대부분 사라지고 오히려 팽창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다. 민족주의는 사물과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 양심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당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것은 저항의 토대가 되며 보편적 윤리성을 갖게 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보편적 이성을 하위 개념으로 밀어버리고 오로지 '민족의 이익'을 위한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p.37. (김태수, 앞의 글, p.31에서 재인용)

67) 이항녕,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 (1996), p.35. (하종필, 「증산 강일순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6 (2007), p.250에서 재인용)

IV. 대순사상과 근대 및 탈근대의 가치

근대화 또는 근대적 가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이념을 포함한다. 근대화에는 왕정의 폐지, 민주사회의 실현과 같은 정치 제도적 관점, 신분의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사회 제도적 관점, 전근대적인 관습을 타파하고 물질적인 빈곤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⁸⁾ 물론 이 외에도 국민국가의 출현, 전지구적 자본주의 경제, 사회적 분화, 종교문화에서 세속문화로의 이행 등 다양한 방향이 있을 수 있지만 본 논고에서는 앞의 세 가지 관점에 국한하여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더불어 대순사상이 근대적 가치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정치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근대화의 개념에는 전근대사회에서 신분제와 같은 봉건적 제도 하에 속박되어 있던 인간이 이를 벗어나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고 왕정(王政) 체제에 벗어나 민주사회를 실현하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민주정치가 서양에서 보편화되는 것은 19세기 중, 후반, 민족국가들의 성립시기이며, 민주정치의 현실적 역사도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⁶⁹⁾ 하지만 근대문명의 발전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민주주의는 근대문명의 중요한 요소이다.

68) 노길명, 『한국신종교연구』, p.291.

69) 라정원, 「인간과 정치사상 그리고 정치체제」,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 (서울: 인간사랑, 2002), p.51. (하종필, 앞의 글, p.250에서 재인용)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는 기존의 왕권 중심 또는 귀족중심의 신분사회를 부정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참정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따라서 전근대적인 군주제나 귀족정치는 부정되어야 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혁명적 변화의 계기를 프랑스 대혁명 시기로 보기도 하며, 조선의 경우 동학농민운동을 그 계기로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증산의 사상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정치사상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동학농민운동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

증산은 당시 민생의 피폐,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의 부패를 해결하지 못하고 쇠국정치를 통해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유교의 정신을 “부유(浮儒)”라고 비판하였다.⁷⁰⁾ 이러한 점은 동학농민운동이 추구했던 정치적 방향과 일치한다. 한편,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 최제우를 “유교의 전현을 넘지 못했다.”⁷¹⁾고 비판하였고 동학교도들을 “각기 왕후장상(王候將相)을 바랬다.”⁷²⁾고 평가하였다. 이는 당시 동학교도들이 신분제를 부정하기는 하였으나 왕권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증산은 만국제왕의 기운을 걷어내는 공사⁷³⁾를 봄으로써 당시의 군주제를 부정한 반면, 당시 동학운동의 경우 반외세를 통해 조선의 왕을 끝까지 옹립하고자 했던 점, 그리고 동학난을 통해 마음속으로 신분상승을 바랬다는 증산의 평가를 볼 때 증산의 사상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당시 동학이 추구하던 정치체제는 완전한 민주주의 제도라고는 볼 수 없었으나 증산께서 추구하던 정치체계는 전근대적인 군주제까지 없애려고 했던 점에서 동학보다는 보다 진보적이었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증산의 정치사상은 서구 근대가 지향하였던 정치사상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다. 근대사상의 핵심에는 인

70) 『전경』, 교운 1장 6절.

71) 같은 책, 교운 1장 9절.

72) 같은 책, 공사 2장 19절.

73) 같은 책, 예시 27절.

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절대개인이 있었다. 근대사상가들은 ‘절대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모든 류의 위계질서, 도리, 도덕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인간질서’가 아닌 ‘절대 개인’의 질서를 구상하였다.⁷⁴⁾ 고대와 중세사상에서 진리를 초월적인 세계 또는 천국에서 찾았다면 근대는 인간의 ‘이성’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성’은 인간의 제도가 아닌 칸트가 말한 ‘순수이성’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따라서 ‘정치’나 ‘사회제도’와는 다른 순수한 것으로 사유되었다. 이 때문에 인간의 ‘권리’와 ‘자유’ 역시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을 보았고, 사회나 국가는 ‘사회적 계약’을 통해 이를 지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억압’이었고 권력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는 것은 그것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악이었기 때문이었다.⁷⁵⁾ 이러한 근대사상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력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대치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러한 근대적 인간관이 인류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한 바가 크기는 하지만 이 또한 그 자체적으로 모순을 가지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순수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허구이며,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권력이나 제도의 영향 안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인간 자체가 언제나 정치적인 동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였던 것이다.⁷⁶⁾

한편, 증산은 “만사를 인간의 의사에 맡긴다.”⁷⁷⁾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긍정하면서도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74)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한국정치담론의 모색』 (서울: 나남출판, 1998), pp.240-241.

75) 같은 책, pp.108-110.

76) 같은 책, pp.113-120.

77) 『전경』, 교법 3장 24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종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⁷⁸⁾고 하시면서 자유의지에 수반되어야 하는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증산이 “지금까지는 정치와 교화가 나뉘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한 갈래가 된다.”⁷⁹⁾고 말한 바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증산은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자체적으로 도덕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그렇게 될 때에 도통군자라는 이상적인 인간상과 후천선경이라는 이상적인 사회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볼 때 증산의 정치사상에서는 서구 근대 정치사상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와 권력 사이의 대립과 분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 양자가 서로 겸비되고 통합된 양상을 보인다. 이를 볼 때 증산의 정치사상은 근대 서구 정치사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탈근대의 정치사상까지 포함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 제도적 관점을 중심으로

근대문명의 특성은 신분제가 없어지면서 만인이 인간으로서 평등한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은 왕이나 귀족계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 백성, 또는 민중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상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전제 안에서 배태될 수 있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평등하다는 사상은 서구 시민혁명의 핵심 모토였으며, 이는 조선의 동학농민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서구의 민중사상⁸⁰⁾과 동학의 민중사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

78) 같은 책, 교법 3장 24절.

79) 같은 책, 교법 3장 26절.

80) 민중사상 또는 민중주의는 일반적으로 지배계급에 대해 피지배계급, 혹은 종속 계급이 펼치는 계급·계층적 투쟁의 이념적 지표를 지칭한다. 계급적 대립관계에서

구의 경우 민중의 권리를 천부인권설과 같이 절대자가 부여한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창조주와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반면, 동학의 경우 인내천(人乃天)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명제 하에 인간의 평등을 말하면서 서구의 평등사상에 비해 인간의 지위를 한 층 격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⁸¹⁾ 이에 비해 증산의 경우 동학의 인내천 사상에 한걸음 더 나아가 오히려 신보다 인간을 더 우위에 세우는 인존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⁸²⁾고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은 더 이상 천지에 대해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사고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천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까지 격상된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의 민중사상에는 인존 사상이 그 근저에 있으며 이 때문에 대순사상의 민중사상은 신명계와 인간계, 나아가 온 우주를 아우르는 인간중심의 우주사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 사상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인간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 해방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의 인간이 신분의 차별, 남녀의 차별, 적서의 차별의 질곡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면 근대 이후의 시기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어지면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근대의 시기는 인간의 욕망이 해방되는 시기였으며, 인간의 성역할도 틀에 박힌 남녀존비 사상에서 벗어나 남녀동등 사상으로 변화되면서 여성 또한

피지배 계급이 주도권을 갖기 위하여 지배계급 및 지배질서에 대항하면서 생성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민중주의는 실천적 대상이나 주체를 민중으로 상정하고 있다. 한국 근대 민중주의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 일제시대 저항 담론인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해방기 민족운동,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진행된 민주주의 운동과 1970·80년대 민중운동의 중요한 사상적 근거로 작용했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앞의 책, “민중주의”.

81) 노길명, 『한국신홍종교연구』, pp.289-290.

82) 『전경』, 교법 3장 35절.

기존의 성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해방은 증산의 사상에서도 발견된다. 증산은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⁸³⁾고 하면서 인간이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 원한(怨恨)을 남기게 되는데,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신명에게도 영향을 주어 전 인류와 우주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증산은 파악하였다.⁸⁴⁾ 그러한 이유로 증산은 인간과 신명계를 모두 아우르는 해원공사(解冤公事)를 행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산은 “어찌 남장군만 있으리오, 마땅히 여장군도 있으리라.”⁸⁵⁾는 말로 여성의 존엄성을 인정해주었으며,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 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⁸⁶⁾고 하며, 남녀동등권(男女同等權)시대를 열 것임을 말하였다. 또 증산은 남성의 권위에 눌러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여성의 권리가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되는 세상을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⁸⁷⁾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증산은 남성에게 지배당한 여성들의 원한이 몇 천 년이나 쌓여왔다고 주장하고, 이 엄청난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지위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음정양(正陰正陽)⁸⁸⁾이라는 용어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위상을 상징하였으며, 앞으로는 여성의 말을 무시한 채 남성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견하였다.⁸⁹⁾

83) 같은 책, 교법 3장 24절.

84) 같은 책, 교법 1장 31절, “한 사람의 품은 원한으로 능히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 있느니라.”

85) 같은 책, 권지 1장 17절.

86) 같은 책, 공사 1장 32절.

87) 같은 책, 교법 2장 27절.

88) 같은 책, 공사 2장 16절.

89) 특히 이러한 남녀평등 사상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수도 체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른 전통종교에서 신부와 수녀, 승려와 비구 등 남녀 종교인에 따라 그 역할이 명

나이가 증산은 당시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신분차별도 비판하였다. 그는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나 양반과 상놈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차별과 억압이 없어져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⁹⁰⁾ 이처럼 증산께서는 남녀의 차별, 신분과 적서의 차별을 반대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없애으로써 사회제도적 관점에서의 인간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러한 인간 해방 사상과 더불어 증산은 이에 수반되는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증산은 “이제 천하 창생이 진멸할 지경에 닥쳤음에도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재리에만 눈이 어두우니 어찌 애석하지 않으리요.”⁹¹⁾라고 하면서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는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본의 노예가 되고 물질적 욕심 속에서 인간 본연의 심성을 잃은 모습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본이 모든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도덕성을 잃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3. 전근대적인 관습 타파와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전근대적인 관습을 타파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구한말 조선에서 근대적 제도가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흔들렸던 관습은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유교식 전통 예법과 상투를 트는 것과 같은 생활관습 같은 것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

확히 구분되어 있는 반면, 대순진리회의 경우 입도(入道)에 따른 연운체제와 선감, 교감, 보정, 교령, 정무, 선사, 교정, 정리, 선무 및 일반 도인의 수도체제에 따른 구별만 있을 뿐 남녀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없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참고

90) 『진경』, 교법 1장 10절.

91) 같은 책, 공사 1장 1절.

우 일체를 통해 근대문물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의 전통 의례는 금전적인 손실과 시간이 낭비가 큰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민중은 구습에 묶여 이것을 타파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러한 풍속이 지속된다면 산업화의 진흥을 이루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⁹²⁾ 이로 인해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반포된 ‘색의 보급’, ‘관혼상제의 간소화’, ‘단발 장려’, ‘금주 금연’, ‘도박 금지’, ‘미신 타파’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례준칙이 발표되고 풍속교화가 진행되었다.⁹³⁾

한편, 이러한 일체의 풍속교화 정책은 초기에 전통적인 유교의 생활양식을 갖고 있던 민중 특히 유학자들과 극심한 갈등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대의 신문화가 일본을 통해 점차 조선에 유입됨으로 인해 조선 민중 또한 이러한 근대화 물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 인사를 중심으로 실력양성과 근대화, 계몽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조선 민중이 주체적으로 근대문명을 받아들여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⁹⁴⁾

구한말 조선의 전근대적인 전통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역시 형식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⁹⁵⁾ 전근대적인 유교의 전통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어 민중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탈형식주의와 실용주의적 사상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한편, 이러한 탈형식주의와 실용주의적 사상은 증산의 사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증산은 “이 세상에

92) 주영하,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 발령과 풍속교화 정책」, 강돈구 외, 『근대 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472.

93) 같은 책, p.498.

94) 같은 책, pp.400-403.

95) 구한말 조선이 개화의 물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원인은 당시 정치의 통치이념이 성리학의 명분인 형식주의로 경화(硬化)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유교가 주희의 성리학 이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태도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윤사순, 「조선조 성리학의 사회사상」, 『한국의 사회사상』 (서울: 한길사, 1987), p.54. (박광수, 앞의 책, pp.199-201에서 재인용)

전하여 오는 모든 허례는 목은 하늘이 그릇되게 꾸민 것이니 앞으로는 진법이 나오리라.”⁹⁶⁾고 하면서 이전의 예법을 부정하였다. 또한 한 종도가 상례에서 “곡하는 것이 옳습니까?”하는 물음에 “원통하게 죽은 신에게 우는 것이 가하나 그렇지 않게 죽은 신에게는 곡하지 않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면서 진정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짐임을 말하였다. 특히 당시 그의 종도들은 일제의 단발령에 반발하였는데 증산은 일진회원에게 친히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공사를 보기도 하였다.⁹⁷⁾ 그의 종도 박공우가 강제로 삭발을 당해 상심하여 바깥출입을 하지 않자 증산은 친히 그를 찾아가서 “나는 오직 마음을 볼 뿐이로다. 머리와 무슨 상관하리오.”⁹⁸⁾라고 말한 일화를 볼 때 증산은 전근대적인 형식주의에 매몰되기 보다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면서 인간의 진실된 마음을 더 중요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증산이 행한 창생의 편의를 위해 서양 문물의 이기를 그대로 두는 공사⁹⁹⁾와 서양신명을 조선에 불러오는 공사,¹⁰⁰⁾ 만국 창생들의 새 생활 법으로써 수화상통 공사¹⁰¹⁾는 증산의 민생 우선의 실용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증산의 사상에서는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민생의 편의를 위해서는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실용주의와 그 속에서도 인간의 진실된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사상도 찾을 수 있다.

96) 『전경』, 교법 3장 37절.

97) 같은 책, 행록 3장 9절.

98) 같은 책, 교법 2장 10절.

99) 같은 책, 공사 1장 35절.

100) 같은 책, 예시 29절.

101) 같은 책, 공사 2장 23절.

V. 결론

근대라는 시기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 매우 혼란한 시기였으며 동시에 시련의 시기였다. 우리는 근대를 겪어오면서 서구 주도의 근대문명을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했던 짧은 시기 동안의 조국의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근대의 시기는 우리에게 있어 서구 문명에 대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시기였으며, 그 열등감을 근대화에 대한 열망으로 바꿈으로써 오늘날 그 열등감을 서서히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러한 근대화의 중심에는 또한 ‘우리 민족’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다. 그러한 민족주의가 자국민 우선주의나 국수주의로 변형될 수도 있지만 민족주의가 가지는 힘은 근대화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와 조국의 근대화라는 화두는 우리의 인문학 전통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나아갈 방향과 정체성에게까지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근대화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지금 21세기를 맞이한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나온 시절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그 과실을 제대로 평가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제 근대를 지나 탈근대의 시기에 접어드는 이때, 과거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근대화라는 가치와 민족주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근대화가 가지고 온 물질과 정신의 분리, 경쟁주의, 개인주의, 성장 우선주의,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와 국제 교류가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민족주의가 유효한 가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논고는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 및 탈근대적 가치, 초민족주의의 특질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대순사상에

서는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초민족주의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근대적 가치도 담지하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탈근대적 가치 또한 동시에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순사상은 소통이 단절된 ‘절대이성’과 인간만을 절대화하면서 자연과 타자를 도구화하였던 근대성을 지양하고 신과 인간, 자연과 이 우주를 모두 포괄하는 전우주적 평화와 해원을 제창하였던 점,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도덕성을 찾으려 한 점 등은 근대성의 폐해를 극복하려는 점을 볼 때 근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포스트모던적 성격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순사상이 가지는 탈근대성에 대해서는 향후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한편 본 연구는 특히 근대적 가치에 대한 포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함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순사상이 가지는 근대적 가치들을 단순히 뽑아내어 다른 사상이나 타종교의 교리와 비교한 한계가 있다. 또한 근대화라는 힘이 대순사상의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또한 하지 못했다. 근대화, 근대성이라는 개념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연구가 앞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대순사상은 이러한 민족주의와 근대적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대 시기를 넘어서 탈근대의 시기로 접어드는 이 때, 과거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 대순사상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논고가 그러한 시발점에 있어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 _____, 『대순지침』,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이상호, 『대순전경』 7판, 전라북도: 증산교회본부, 1975.
- 강돈구,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집문당, 1992.
- _____, 「근대 신종교와 민족주의 I」, 강돈구 외, 『근대성의 형성과 종교 지형의 변동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종교문화연구소, 2005.
- _____, 「근대 신종교의 민족주의 II」, 강돈구 외,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 _____, 『종교이론과 한국종교』, 서울: 박문사, 2011.
- 강영한, 「한국 근대 신종교의 성격과 사회변동: 동학,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고건호, 「동학의 세계관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변증법」, 강돈구 외,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 고남식, 「수운과 증산의 민족주의적 요소 비교」, 『신종교연구』 26, 2012.
-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서울: 숲, 2000.
- 기시모토 히데오(岸本英夫), 『종교학』, 박인재 옮김, 서울: 김영사, 2000.
- 김태수, 「대순사상의 민족주의적 요소에 대한 재해석」,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 _____, 『한국사회와 종교운동』, 서울: 빅벨출판사, 1988.
- 라정원, 「인간과 정치사상 그리고 정치체제」, 최상용 외, 『인간과 정치사상』, 서울: 인간사랑, 2002.
- 박광수, 『한국신종교의 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집문당, 2012.
- 박승길, 「한 일 근대초기 신종교운동과 구체제변혁의 논리구조」,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 박원용, 「한국 신종교의 민족주의 사상에 관한 연구-천도교, 증산교,

- 원불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윤기봉, 「증산사상에서의 근대성 해석 문제-계급제도의 붕괴와 부의 재분배를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34, 2010.
- 윤사순, 「조선조 성리학의 사회사상」, 『한국의 사회사상』, 서울: 한길사, 1987.
- 윤승용, 「사회변동에 대한 종교의 반응형태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2.
- 이경원, 「대순진리의 근대성과 변혁사상」, 『동학학보』 10, 2005.
- _____, 「한국 근대 증산교단의 민중·민족운동-개항기부터 해방이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2, 2012.
- 이항녕,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 1996.
- 임현진, 「사회과학에서의 근대성 논의」 『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역사문제연구소편』, 서울: 역사비평사, 1996.
- 정영훈, 「삼일운동과 단군민족주의」, 『동양정치사상사』 11, 2012.
- 조현범, 「종교와 근대성」 연구의 성과와 과제, 강돈구 외, 『근대 한국 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06.
- 주영하, 「조선총독부의 의례준칙 발령과 풍속교화 정책」, 강돈구 외, 『근대 한국종교문화의 재구성』,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 하종필, 「증산 강일순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16, 2007.
- 함재봉, 『탈근대와 유교-한국정치담론의 모색』, 서울: 나남출판, 1998.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2006.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위키백과, Availabel: <http://ko.wikipedia.org/wiki>

▪Abstract▪

Characteristics of Daesoon Thought in Korean Modern Times

– Focused on Transnationalism, Modern and
Post-modern Values –

Jae-Hyun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s aim is to identify modern and post-modern values and transnationalism embodied in Daesoon Thought and to seek for the new value to overcome irrationality of modern values in this society we live in. Several previous studies discussed about these issues, but most of them studied them on the basis of Korean new religions or Jeungsangyo, or in sociological theory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Daesoon Thought encompassing ideological perspective as well as historical perspective of Daesoonjinhoe.

As for nationalism, while Eastern learning(Dong-Hak) is prone to ethnocentricity, Daesoon Thought shows trans-ethnic perspective. As for historical perspective, Mugeuikdo, a precursor to Daesoonjinhoe showed non-relationship with any politics as contrasted with other new Korean religious movement at that time.

As for aspects of modern values, 3 perspectives (political system,

social system, abolition of premodern values) were discussed.

As for political system perspective, while Eastern learning advocates democratic modernity but accepted monarchy, Jeungsan denied monarchy. And While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advocated rationality-based absolute person, Daesoon Thought proposes ideal human who can have political power and do religious indoctrination all together.

As for social system perspective, while western humanism is based on all of he people's equity in front of God, Eastern learning on humans are Heaven (人乃天), Daesoon Thought is based on Injon thought(人尊思想) which encompasses spiritual world, human world and all of the universe. Daesoon Thought also proposes abolition of discrimination by gender, social position.

As for abolition of premodern values, Daesoon Thought critics pre-modern formalism and advocate acceptance of other nations' culture, pragmatism, and humanism.

As presented above, Daesoon Thought has not only modern values but also aspects of post-modernity and transnationalism. In the futu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which tackle these issues and search for new values of Daesoon Thought which can overcome limitation of modern values.

Key words : Daesoon Thought, Jeungsan, modernity, modernization, Postmodernism, nationalism, Daesoonjinrihoe

◎ 투 고 일 : 2014년 10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4년 12월 19일~28일

◎ 계 재 확 정 일 : 2014년 12월 29일